

6000년 인류역사 이래 처음으로 열린 영생 길

피가 곧 생명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구세주론을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론을 논한다든지 죄론을 논한다든지 말세론을 논한다든지 안식일론을 논한다든지, 또한 성경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정확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해요, 비과학적으로 논해요? 과학적으로 논하죠? 사람의 주인이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마음이 주인이죠? 마음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했죠? 마음이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 바로 신이요, 신은 신인데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이 틀림없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요'라고 써여 있고, '생명은 곧 피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써여 있어요. 또한 이제 그대로 창세기서 9장 4절에 '생명이 되는 피'라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써여 있으니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죠? 피의 작용이 마음작용인 고로 마음=피죠? 그러므로 마음이 영이면 피가 영이죠? 마음이 영이면 피가 영인 고로 마음이 영이면 신이요, 마음이 신이라면 피가 신이죠? 피가 신이면, 피로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사람의 몸이 되는 고로 사람의 몸이 신이냐, 신이 아니냐?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또렷하게 써여 있어요, 희미하게 써여 있어요? 또렷하게 써여 있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신이라는 소리죠? 또한 신명기서 14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 되어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라는 거죠?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이렇게 써여 있고,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전부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써여 있는데, 예수가 나와서 자기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기 하나 밖에 아들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대로 가르친 거야, 비성경적으로 가르친 거야? 비성경적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영모님이 예수가 마귀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는 공중신, 공중 신은 마귀 신

영모님이 예수를 마귀새끼라고 막- 두드려 부수면서 성경구절은 왜 일러주지 못했느냐 하면 영모님이 성경구절을 다 일러주게 되면 마지막 때에 완성자, 진짜 구세주가 와서 할 말이 없는 고로 이 사람이 할 말을 남겨놔야 되겠죠? 영모님이 예수가 마귀새끼라고 하니깐 관장들이 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성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특히 순복음 교회로 많이 갔어요. 순복음 교회에 가면 거의가 다 전도관 출신이예요. 그러나 영모님은 분명히 예수가 마귀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성경구절을 여기, 저기에서 찾아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마귀새끼라는 걸 확신시켜줬죠? 예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다.' 또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예베소서 2장 2절에 써여 있죠? 그리고 사도 행전 9장 5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메섹 고개를 넘어갈 때에 공중하늘에서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죠? 그러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풀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주여- 뉘시니까? 하니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공중에서 얘기했죠? 그러므로 예수는 공중신이냐, 땅



구세주 조희성님

의 신이냐? 예수는 마귀가 틀림없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요단 강에서 물세례 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올새 공중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귀새끼인 것이 틀림없죠? 그래도 마귀새끼 아니라는 사람, 있을까?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조합해서 맞추어 놓는 데는 아찔 도리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세주가 없으면 몰라도 구세주가 있는 한, 자가 마귀 탈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죽어, 안 죽어? 죽는 열매가 주령주령 달리면 그 예수 나무가 마귀 나무야, 하나님 나무야? 마귀 나무죠? 그 열매를 보아서 마귀 나무가 틀림없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죄가 뭘 줄 몰랐고 선악과가 뭘 줄 몰랐죠? 이슬성신도

못 내리면서, 이슬만나도 못 내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으니 이걸 거짓말쟁이죠?

예수는 거짓말쟁이

예수가 뭘 외쳤는지 아세요? 예수도 영생을 논하는 자가 구세주가 된다는 걸 알긴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가 한 말이예요. 아시겠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자신이 죽어, 살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한테 나눠주고 마시라고 하면서 자기 피를 상징한 것이라고 했던 거죠? 또한 과자를 떼어 주면서 자기 살을 기념하라고 그랬던 거죠? 그게 과자

지 살이냐? 미처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예요. 예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예수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평생을 이 사람은 영생을 찾아 영생 길을 가려고 성경을 들추고, 많은 은혜자를 다 찾아다니 사람이라고 그랬죠? 옛날 박재봉 목사라고 감리교 부흥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 잡혀마다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영모님을 만나가지고 영모님 집회를 같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신앙혼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영생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성경 속에 혹시 영생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봤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영생 얻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수박겉핥기 그 글자 써여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하지, 욕심을 일으키는 주체가 나라는 의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책을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 이면의 뜻을 항상 새기면서 읽어요. 그래서 욕심이 죄라면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리니까 나라는 의식이 죄가 틀림없다고 그 이면을 생각하며 읽으니까 이 사람이 읽는 방법이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하죠?

영생의 길을 가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요, 나라는 의식이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데 틀림이 없죠? 나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죽을죄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이 좋은 일한다고 고아원에 쌀을 빼가거나 갖다 쥐도 죽을죄죠? 그런 걸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

람들이 알아야? 나라는 것이 웃어도 좋아하는 음란죄라는 얘기를 밀실에서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한 고로 사람이 웃는 것이 죄라면, 기뻐하는 것이 죄라면 어찌 사람으로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이 사람이 완전히 포기하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영생이 아니냐 죽음이냐 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었던 고로 이 길은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죽으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결심을 하고 내달려가면 어떠한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어. 영생의 길도 죽기를 각오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영생의 길을 뚫었어, 안 뚫었어? 뚫었죠?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게 영생의 길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사람이 6000년 인류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 사람 말고 또 있었어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구세주죠? 영생 얻는 방법을 논하는 걸 보면 틀림없는 구세주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희생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인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인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돼요.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강해야 반드시 이긴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어. 이 사람이 인내심으로 이긴 사람이니 무슨 착한 마음으로 이긴 자가 된 게 아니예요.*

2001년 6월 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6장 40년의 광야생활》

(4)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4)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에 이르고, 거기서 남하하여 엘림으로 이동할 때 왼편에 있는 이드로 장인의 집을 지나쳐 갔으며, 또 홍해 가 살마(Shamah)라는 어촌(漁村)에서 오던 길을 되돌아 가다가 중도에서 북상하여 신(Sin)광야로 이동할 때 오른편에 있는 이드로 장인의 집을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알 바드(Al Badh) 마을에 있는 이드로(모세의 장인)의 집은 시내산(라오즈산)에서 남서쪽 40킬로미터쯤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드로의 장인 집에는 그의 아내 심보라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행진 중에 두 번이나 그의 아내 심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 중이던 그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다.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모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安危)를 더 생각하였고 또 그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Sin)광야에서 시내산(라오

즈산)을 왼쪽에 끼고 바란 광야로 북상할 때에는 두 번 다시 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행진하게 하셨고 시내산 서북쪽에 위치한 르비딴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 데서 온 성과(成果)였습니다.

가나안과 미디안의 접경 지대에 거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도적떼처럼 무리를 지어 해마다 미디안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가족과 아녀자를 수탈해 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과 장인 이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미디안의 알 바드(Al Badh) 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의 마을에서 지적에 있는 르비딴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자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요, 곧 이드로 자신의 사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맡겨둔 모세의 아내 심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시내산 또는 라오즈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드로는 아라비아반도의 미디안 땅에서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그의 딸 심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모세를 사위로 삼을 때에,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이 모세가 믿는 신과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임을 알았도 또 서로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문밖에 서서 장

인 이드로를 영접한 모세는 장인어른을 장막 안으로 모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심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니 야훼 아말로 마땅히 찬양받을 분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바드(Al Badh) 마을에서 반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의 송사를 다루고 재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지내는 것을 이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아 일을 분담한다면 일처리가 한결 수월하게 될 것이네. 그러므로써 판결을 받기 위해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게 되니, 자네와 백성들이 기력이 빠져 피곤해지는 일도 막게 될 것이네."

모세는 경건한 제사장 이드로의 권면을 수용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였습니다. 며칠간 광야의 장막에서 지낸 이드로는 모세의 배움을 받으며 바드(Al Badh)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1장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조언함

12절: 그러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험거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